경영유의사항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경남은행

2. 조치일 : 2024. 1. 8.

3. 조치내용

대상	내 용
기 관	경영유의 1건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

(1) 집합평가 대손충당금 산정체계 강화

㉮ 미래전망 예측모형 적정성 강화

은행은 20XX년 이후 과거 실측부도율과 거시경제변수와의 관계를 모형화(이하 '미래전망 예측모형')하고 미래 거시경제 시나리오별로 부도율(Probability of Default, 이하 'PD')을 추정하여 각 시나리오별 가중치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PD(이하 '예측PD')를 대손충당금 산정에 활용하고 있으나,

미래전망 예측모형의 예측PD 결과를 과거 실측부도율과 비교한 결과, 과거로 갈수록 예측 PD 수준이 실측부도율보다 크게 낮아지는 등 은행의 예측PD가 과소 추정될 우려가 있고,

소매 익스포져는 리스크특성에 따라 주거용부동산 익스포져, 기타 소매 익스포져(개인, 개인사업자 등), 적격회전거래(신용카드) 등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각 익스포져의 실측부도율 수준이 차이가 나는데도

전체 소매 익스포져 대상으로만 미래전망 예측모형을 개발하여 예측PD를 추정하고 있어 소매 익스포져별 실측부도율 수준 등 리스크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예측PD의 신뢰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미래전망 예측모형 개발시 실측부도율 사용기간 확대 등을 통해 예측력을 개선하고 소매 익스포져의 리스크특성에 따라 예측PD를 세분화하여 추정하시기 바람

㉯ PD 추정을 위한 부도정보 인식 요건 강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3> 등에 따라 은행이 PD를 추정할 경우에는 부도와 중요한 관련이 있는 가용한 모든 데이터를 반영해야 하는데도,

은행은 대손충당금 산정하기 위한 소매 익스포져의 PD를 추정하면서 기준시점에는 존재하지 않았으나 부도를 관측하는 기간 중 신규로 발생하는 부도(이하 '신규부도')를 반영하지 않아 은행이 경험한 신용손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은행은 대손충당금 산정을 위한 소매 익스포져의 PD를 추정할 시에 신규부도 데이터를 반영하시기 바람

㉰ 전체기간(Lifetime) PD 추정 강화

대손충당금 산정시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여신(이하 'Stage2')에 적용하는 전체기간(Lifetime) PD는 만기가 길어질수록 증가해야하나,

비소매 익스포져의 전체기간 PD를 추정하면서 일부 신용등급의 만기 2년 이상 구간의 PD를 1년 PD와 동일하게 추정하는 등 전체기간 PD를 불합리하게 추정하고 있음

따라서 은행은 전체기간 PD 추정시 기간별 실측부도율의 증가 추세를 반영하는 등 전체기간 PD 추정방식을 보완하시기 바람

㉮ 부도위험 확대에 따른 PD 추정방식 강화

은행은 소매 익스포져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산정하기 위해 과거 실측부도율을 평균한 값에 미래 경제상황을 반영하여 추정한 PD를 사용하고 있으나,

소매 익스포져의 일부 자산군(Pool)에 적용하고 있는 PD가 최근 O년 실측부도율을 하회하고 있어 소매 익스포져의 부실위험을 과소 평가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은행은 부도위험 확대 가능성에 대비하여 소매 익스포져의 자산군별 PD가 최근 실측부도율을 하회하지 않도록 추정방식을 보완하시기 바람

㉯ 손실위험 확대에 따른 부도시손실률(LGD) 추정방식 강화

은행연합회의 「기대신용손실 측정 미래전망 반영 실무지침」에 따라 현재 및 미래 예측된 경제상황이 과거 신용손실 산출시 사용된 대상기간의 경제상황과 다른 경우 거시경제 변화에 대한 민감도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에도,

은행은 2023년 6월말 기준 대손충당금 산정을 위해 신용대출의 부도시손실률(Loss Given Default, 이하 'LGD')을 재추정하였으나 LGD 수준이 낮은 시기를 추가로 반영하면서 최근의 신용대출 LGD 증가 등 손실위험 확대 가능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낮아진 LGD를 적용하는 등 대손충당금 과소 적립 우려가 있음

따라서 은행은 LGD 추정시 최근 LGD 실측치의 상승 추세를 반영하는 등 대손충당금이 과소 산출되지 않도록 관련 절차를 보완하시기 바람

㉰ 만기연장 여신에 대한 추가충당금 적립 강화

은행연합회의 「기대신용손실 측정 미래전망 반영 실무지침」에 따라 기존 예상손실 전망모형을 통해 산출한 손실위험이 코로나19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여신 등 부실 가능성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 추가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으나,

은행은 2023년 6월말 기준 코로나19 만기연장 여신 중 자산건전성 분류상 요주의 이하 차주의 여신에 대하여만 추가충당금을 적립하는 등 추가충당금을 선택적으로 적립하였음

따라서 은행은 코로나19 만기연장 여신 중 자산건전성 분류상 정상 차주에 대해서도 추가충당금을 적립하는 등 코로나 금융지원 정책으로 이연된 취약 자주의 잠재 부실위험에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람